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음 6월 2일) 제3769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민생경제 회복 총력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가동… 물가 · 일자리 · 소비 등 주요 지표 모니터링
정부 비상경제 점검 TF 논의사항 공유 · 시군 애로사항 수렴 등 주요 역할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전북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비상 지역경제 상황실'을 가동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도청 2층 예산심의실에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소비자물가 · 고용률 ·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 4일부터 '비상 경제 점검 TF'를 출범시켜 전국 단위의 경제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한 데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상황실을 운영하게 됐다.

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기획관, 일자리 민생경제과 등 관련 부서들이 협업 체계를 구성해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소비자물가, 고용률 등 지역경제 지표 모니터링 △정부 비상 경제 점검 TF 논의 사항 공유 △시군 애로사항 수렴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이며,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열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소비와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삶의 현장에 밀착한 민생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상황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발굴 · 추진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3대의 명예, 전북이 기억합니다"

도, 병역명문가 224가문에 도지사 명의 감사 서한

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병역명문가 224가문에 김관영 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을 전달하며 병역의 명예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번 서한은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추진됐다.

병역명문가는 조부, 부 · 백부 · 숙부, 본인 및 형제 등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의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병무청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단순 복무 경력을 넘어 실제 안보 기여도와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한에서 "3대에 걸친 병역 이행은 나라를 향한 책임과 신념이 대를 이어 실천된 결과"라며 "병역명문가의 헌신은 모든 도민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긍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이번 완주군 방문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완주군 방문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전 완주군청을 방문해 군민들을 만날 예정이였으나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군청을 빠져나와 군민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건설산업 위기 속 전북자치도 수주활동 결실

올 1분기 수주액 7681억원,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 70.6% 달성
지역업체 활용률 올라… 새만금 수주 금액 803억원 전년비 ↑

전북특별자치도가 건설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수주 확대 전략에 힘입어 2025년 1분기 건설수주와 지역업체 활용에서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1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이 7,68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호남권 전체 수주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도는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 기반 조성 △지역업체 보호 및 우대제도 확산 △수주 지원 활동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적극 독려한 결과, 6월 현재 총 3조3,727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돼 목표 발주율(65%)을 웃도는 70.6%를 달성했다.

현장 중심 수주 활동도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도내 공사현장 및 기업 본사를 방문하는 '현장 세일즈'를 56회 실시하며, 실질적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기업 공장 건설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시공 실적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역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견인했다.

그 결과, 2024년 새만금국가산단 내 공장 건설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803억원으로, 수주 비율이 전년 대비 59.5%에서 81.7%로 대폭 상승했다. 수주 건수 기준으로도 11건 중 2건만 도외업체가 맡을 정도로 지역업체 주도 현장이 확대됐다.

민간 공동주택 건설시장 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업체 활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 투자유치 프로젝트 등 신규 수주 기반을 넓히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